

협회 소식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월 16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원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2007년도 주택 시장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 주택 거래량 감소, 주택 건설 경기 위축으로

대별되며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지방과 수도권권의 차별화된 주택 정책, 주택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며 민간 택시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철회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주택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확대 추진 철회,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우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운영홍보위원회 위원들은 '1·11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사와 협회로 소위원회 구성해 대응 논의를 마련해 적극 대처기로 하고, 국회 법률 개정 시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주택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행정 복합 중심 도시 내 종합 전시관 및 협회 사옥 건립 추진은 회원사와 협회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운영홍보위원장인 원현수 코오롱건설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승진 발령됨에 따라 공석이 된 운영홍보위원장에 한화건설 봉희룡 상무를 선

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삼성물산 이경택 상무, GS건설 김종규 상무, 현대건설 김경호 상무를 선출했다.

한국주택협회, 2007년도 시무식



협회(회장 이방주)는 지난 1월 2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윤오수 상근부회장, 조태희 전무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시무식에서 작년 한 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주택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협회의 존립 목적이 주택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게 그 주된 임무인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말 중국방지산업협회(회장 송춘화)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처럼 올해에도 국제 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은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로 정보화 사회·지식 사회가 고도화되면 상상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난마처럼 얽힌 주택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서 주택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김진철 기획홍보팀장에게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장 전수식이 있었다.

회원사 소식

대우건설, 새 CI '날개' 심볼 달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전체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는 통일된 CI(날개 심볼)를 새로 그룹 일원이 된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규)에도 적용한다.

대우건설의 새로

운 CI는 '대우건설' 글자체 우측 위에 빨간색 날개(wing) 마크가 붙어 있는 형태다. 이에 따라 대우 빌딩 외벽에 걸린 간판도 종전의 영문 로고 대신 새로운 대우건설 CI로 변경되어 좌측 측벽에 이동 부착되고, 건물 정면에는 'KUMHO ASIANA'라는 CI가 설치된다.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 로고는 종전과 같이 우측 측벽에 위치한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대우건설이라는 상호는 유지하되, 그룹 전체 계열사가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wing(wing) 마크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06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수상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건축물에 감성과 디자인을 부가한 디자인경연의 실천으로 건설 업계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 두바이 같은 세계적 초고층 빌딩을 세워왔다. 또 삼성건설은 2000년 업계 최초로 주택 브랜드 1호 '래미안'을 출시해 사용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가꿔왔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아 건설 업체로는 드물게 디자인상을 받았다.

현대건설, '2007 기술혁신경영대상' 3년 연속 종합 대상 수상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원장 이민섭)이 주관한 '2007년 대한민국 기술혁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종합 상을 받았고, 디지털 방송 장비 업체 노드시스템도 제조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업 부문 20개, 제품(기술) 부문 13개 등 모두 33개 기업이 경영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기술혁신경영대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한 기업과 제품 및 기술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기업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제정됐으며, 시상부문은 기업 부문(업종별), 제품 및 기술 부문(제품·기술별)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금호건설, 임직원 급여 끝자리 모아 이웃 돕기



금호건설(대표이사 이연구)이 지난해 말 종로구청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급여 끝자리 모으기' 운동으로 마련된 성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연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0여 명이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끝자리 모으기' 운동은 매월 임직원들의 천 원 아래 자리수의 잔액을 모아 이뤄졌고, 금호건설은 소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금액에 일대일로 매칭된 금액이 추가된 성금을 마련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금호건설 조경연 부사장 등 임직원 5명과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 관련 인사 10명이 참석했으며, 기증된 성금과 물품은 종로구에서 관할하는 아동복지센터로 전달될 계획이다.

대림산업, 고객자녀 초청 '디지털 아트 스쿨(Digital Art School)' 열어



e-편한세상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대림산업(대표이사 이용구)은 1월16일부터 1월 22일까지 겨울 방학을 맞이한 거주 고객 및 입주예정 고객 자녀(6~10세) 100명을 대상으로 종로구 통의동의 대림미술관에서 '디지털 아트 스쿨'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 스쿨은 대림미술관내 전문 도슨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즈의 마법사'의 동화 속 주인공들인 도로시, 사자, 허수아비 등을 소재로 하는 파스텔 그림을 그려보고, 이를 동영상으로도 직접 제작 및 시연해 보는 체험학습장이다. 예술에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현대적 작품제작기법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효과를 얻

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아트 스쿨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어머니들은 대림미술관의 "컴퓨터와 아트"전 관람과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투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림산업 고객센터 이연수 부장은 "성인 고객들에 비해 어린 자녀들은 미술관 관람이나 아트스쿨 등의 참여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뜻 깊은 문화행사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객자녀 초청 아트스쿨은 오는 여름방학에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나만의 H수기' 시상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힐스테이트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 : 나만의 H수기 공모' 당선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본사 '르-씨엘'로 초청, 시상식을 개최하고 힐스테이트상을 수상한 홍혜영 씨에게 미주·유럽 지역 여행권 등 부상으로 세계 여행권을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출시와 함께 '당신의 H를 찾아 세계 여행의 꿈을 이루라'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실시해 H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그에 어울리는 수기를 공모해 나만의 H는 Husband(남편)라는 주제로 응모한 홍 씨가 영예의 대상인 힐스테이트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H수기의 주제로 가슴 따뜻한 가족들의 사연이 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힐스테이트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가족과 함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우방, 봉사 모임 회원들 활동 활발



연말을 맞아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나눔 경영이 활기를 띠고 있다.

C&우방(대표이사 변재신) 여직원 자원 봉사 모임인 한비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구 북구 태전동 아동 보호 시설인 새별

회를 방문해 울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한 데 이어 아이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비회 회원들은 아동 보호 시설에 지원할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일일 찻집을 운영하는 열성을 보였다. 한비회는 또 이날 모인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지난해 희귀성 난치병인 '부신백질 이영양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박무현 어린이(10 북구 읍내동 칠곡우방하이츠) 집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C&우방은 지난해 8월 박무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 음악회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전액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C&우방 봉사 모임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북 군위군 소보면 도산마을과 지난해 자매 결연을 맺은 후 자매 마을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건강복지관'을 무료로 건립하는 한편, 이날 복지관 준공식과 기증식을 가졌다.